

# “정국 전환 기대” “꼬리만 잘랐다”

■ 정치권 ‘김석기 사퇴’ 상반된 해석

## 與 “악순환 단절 계기” 野 “특검 추진 불가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용산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권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애권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여권=우선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안타깝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표현까지 나타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김 내정자의 충정과 진정성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본다”면서 “김 내정자 본인의 고독한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는 10일 “이 대통령은 9일 저녁 늦게 김 내정자의 기자회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참모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동안 정치적 부담에 시달린 탓인지 정국 전환 효과에 대한 기대

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는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경찰의 명예를 지킨 처신”이라고 평가했다.

조운선 대변인은 김 내정자 사퇴 회견 직후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어려운 용단”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개발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김 내정자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퇴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공방은 그만 두고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란다”면서 “폭력을 옹호하며 정치공세에만 급급한 민주당 등 야당도 남탓만 하는 구태를 버리고, 공당으로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마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면서 용산사태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이 불가

피하다고 맹공을 가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도 한번 없이 공권력에 의한 국민적 참사를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당 응산참사조사위원회 위원인 김종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검찰 수사를 통해 경찰 수뇌부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이번 참사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불도저식 국정운영 방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응산참사 수사 결과를 경찰에 면죄부만 준 ‘찌맞기’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애권 공조로 특검제 및 국정조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내대표는 “특검이 진상조사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종합적으로 밝혀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긴급현안질의,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의 상당 부분을 응산참사에 집중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용산 특공대 투입 靑에 보고 했나”

### “간통죄 폐지 검토할 때”

신영철 대법관 후보

#### 민주, 원세훈 내정자 의혹 추궁

원세훈 국정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 참사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또 공직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 몸담아온 탓에 국정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원 내정자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진압 작전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진압작전을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용산 문제에 있어 원 내정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법상 경찰청장의 제3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도 “용산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면서 “경찰청이 독립외성기지만 청장과 주무장관이 중요한 사항을 서로 상의하지 않느냐”고 보고 여부를 따졌다.

박지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상 용산 특공대 투입에 대해 청와대와 장관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안 했다면 장관의 행정부 장악력이 약한 것”이라며 “원 세훈을 살리기 위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희생시켰다는 소리를 들어봤느냐”고 물어붙였다.

원 내정자는 이에 대해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면서 “경찰의 구체적 사안은 직접 지휘하지 않아 책임을 말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원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이른바 ‘S(서울시)라인’ 측근으로서 자질과 관계없이 발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기관장 인사가 대구·경북(TK) 출신으로 편중된 점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울시에 재직하면서는 편파인사의 수혜자였고 행안장관을 하면서는 편파인사의 가해자 입장”이라며 “이번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모든 인사가 TK가 PK(부산·경남)를 학살한 인사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믿을 수 있는 측근이어서 국정원장에 임명됐다는 평가인데 그 점에서 세간의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원 내정자는 “업무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편려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또 원 내정자 부인과 누나 명의로 구입한 뒤 매도한 경기도 포천 땅 등과 관련한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흥미로운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 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며 “종신형도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는 만큼,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거나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40~50년 정도 복역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사형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게 맞다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 집행 여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흥미로운 얼굴 공개 논란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 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며 “종신형도 인권침해적 요인이 있는 만큼,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거나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40~50년 정도 복역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사형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게 맞다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 집행 여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동영 출마’ 거론 했을까

정세균 - 노무현 국비 회동 … 정동영·손학규 측각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근 국비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인사의 회동은 특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월 재보선 출마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울산·경남 MB야당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8일 아침 봉하마을로 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대표는 자신을 수행하

고 있던 이미경 사무총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노영민 대변인, 최철국·조경태·전현희 의원 등에게 방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안희정 최고위원과만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을 방문할 때에는 일정을 공개했다는 점에 비춰 방문 목적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양측은 모두 “설 인사를 나눈 자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시간 정도의 회동에서 두 사람은 ‘용산 참사’와 ‘연말 국회 입법 투쟁’ 등 현 시국을 소재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정 전 장관의 출마 문제 가 거론됐느냐 여부. 노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당 지도부 인사들이 지역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어 정 전 장관 측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떠나 당내 20~30% 수준인 친노계의 주장이란 점에서 무시하기 힘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일 오후 국회대표실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세입자 분양권부여, 분쟁조정위 설치 등 정부의 재개발 사업 개선안 발표와 관련,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해남 간척지 가경작도 직불금 수령”

### 시민 아이디어 활용 입법 추진

#### 민주당 김영록 의원



애매한 법률 규정 때문에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에 가경작 농민들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

원은 1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직불금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새로운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쌀 직불금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은 영산강 3-2지구 회원 1 공구 지역 간척지 927ha 중 당시 가경작 허가면적 803ha, 80여 농가다.

이 지역은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경작으로 벼농사를 지었으나,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경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이낙연 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인 이낙연 의원(합평·영광·장성)이 10일 ‘호민관 클럽’으로부터 시민 아이디어를 전달받아 입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식품에 유통 기한과 함께 정확한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것.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대부분은 유통기한만 표시되고 제조년월일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호민관 클럽은 시민 아이디어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함께 결성한 모임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최우수 드림팀 강사진 / 셔틀버스 운행 / 저녁 11:20분까지 의무 자율학습(일요일은 격주로 의무 자율학습) / 철저한 성적관리

### 인문계열 모집반

- 서울대+경찰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월 수강료: 47만5천원(통일 10교시+토요일5교시 월 26일 수업))

### 자연계열 모집반

- 의치한의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 개강

2월반 2월 16일(월)

3월반 3월 3일(화)

### ★ 명예로운 학원생 ★

- 재수생 전체수석 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백 00군 획득
- 광주 일등학원 자연계 선동일 군 (연세대 치대합격(20명 모집)/김종대치대/단국대 치대 합격)

[www.kjildeung.com](http://www.kjildeung.com)

광주  
일등학원  
TEL: 062-227-2588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 금 공무원 對備 전문

문제풀이반 4주 완성 수시집수

국가+지방직 소속별이론반 성황리감의증

(영어) 10 기능직 (없는 통급)